

군산시 나운2동 김태환·강정희 성품 기탁

✎ 김기현 | ⓒ 승인 2025.06.16 15:37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백만, 공공위원장 남귀우)는 16일 김태환·강정희 부부가 행복 나눔 공유공간에 라면 40상자(11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부터 착한가정으로 활동하며 매월 2만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있다.

김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 잘 전달돼 행복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백만 민간위원장은 “착한가정으로 꾸준히 기부하고, 한편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힘써주시는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기탁을 통해 행복나눔 공유공간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운주공4단지 상가에 자리한 '행복나눔 공유공간'은 기부받은 물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다.

/군산=김기현기자



김기현 sisando7@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